

다스코·DSR 제강 “잘 나가네”

광주전남 상장사 주총 참여다보니

광주·전남지역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코스피 상장사들은 경영권 다툼도 있었지만,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오너 친정체제 강화, 이사진 물갈이 등 변화가 있었다. 또 이들 상장사는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다.

◇20대 자녀 경영진 합류·교수·공무원 사외이사로

20대의 경영진 진출이 눈에 띈다. 대우에이텍은 박영우 대우그룹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29) 위니아대우 이사를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뉴욕대를 졸업한 박 이사는 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대우에이텍 1.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대표기업 금호산업은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대표이사사 물러나면서 서재환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 대신 박홍석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박 선임 이사는 박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금호IDT 사장의 최측근이다.

화천기공은 권영두 회장과 관계자인 권형록(38) 서암기계공업 전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금호HT는 김영호 상무이사과 박상진

광주신세계·부국철강 ‘글썸’…금타·보해 ‘고전’

20대 자녀 경영진 합류…교수·공무원 사외이사로

필룩스 이사를 사내이사로 추가했고, 다스코도 김용욱 관리부서장과 김창태 건축자재사업본부장을 사내이사로 보강했다.

교수 출신으로는 이근식 건국대 석좌교수는 금호산업, 한장희 전남대 교수는 광주신세계, 유시진 고려대 교수는 조선내화 사외이사가 됐다.

교수 공무원을 지낸 위귀환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신세계, 김완기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화천기공 사외이사로 뽑혔고, 언론인인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대표이사는 금호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금호산업·다스코·DSR제강 잘 나가네

주식 거래가 중지된 세화아이앤씨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13개 상장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은 6강·3중·5약으로 분석됐다.

금호산업의 실적은 양호하다. 지난 2017년 1조2974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1조376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307억원에서 420억원으로 36.8%, 당기순이익은 82억원에서 671억원으로 무려 718% 증가했다.

다스코는 지난 2016년 매출액이 1571억

1424억원)과 영업이익(13억→9억원), 당기순이익(23억→21억원) 모두 소폭 줄어 들었다.

중국 회사로 매각된 금호타이어는 실적이 급추락하고 있다. 매출은 2016년 2조3539억원, 2017년 2조1778억원으로 2조원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1조8813억원으로 급감했다. 영업이익(손실)은 2016년-1430억원에서 지난해 -211억원으로 적자폭을 크게 줄였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3년새 -2453억원에서 -5973억원으로 2배 이상 적자를 키웠다.

대우에이텍도 매출은 증가세이지만, 영업이익은 116억원에서 69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017년 46억원 순이익에서 지난해 27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보해양조는 적자 폭을 더 키웠다. 지난해 매출이 814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016년 63억원 적자에서 2017년 11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적자 280억원을 기록, 1년만에 적자 폭이 커졌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 매출액 60조2715억원, 영업손실 -2조1933억원, 당기순손실 -1조952억원으로 적자를 보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7.18 (+8.90)	↓ 금리(국고채 3년) 1.71 (-0.02)
↑ 코스닥 739.57 (+2.76)	↑ 환율(USD) 1136.40 (+2.70)



삼성전자 무풍에어컨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무풍에어컨' 갤러리 제품의 인기로 힘입어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직바람 없이 시원한 무풍 냉방에 바람문까지 없앤 혁신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작은 면적의 주거공간에 적합한 모델을 추가해 달리는 시장 요구를 적극 반영해 탄생했다. <삼성전자 제공>

100대 상장사 중 최고 연봉 에스오일 1억3700만원

잡코리아 분석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13곳의 직원 평균 급여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시총 상위 100개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공시한 80개사(지주사 제외)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급여는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 직원이 평균 9000만원으로, 여자 직원(5800만원)보다 3200만원이나 많았다.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사

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스오일(S-OIL)로 1억3700만원이었으며, ▲메리츠증권(1억35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2800만원) ▲삼성증권(1억2100만원) ▲NH투자증권(1억2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삼성전자(1억1900만원)와 SK텔레콤(1억1600만원), SK하이닉스(1억700만원), 삼성화재(1억600만원), 롯데케미칼(1억600만원), 미래에셋대우(1억600만원), 삼성물산(1억500만원), 삼성카드(1억1백만원) 등 모두 13곳이 '억대 연봉 직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창업 지원기업 5년 생존률 53.1%…일반의 2배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정부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5년 후에도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 지원기업 2만2334개를 대상으로 생존율과 고용·재무·혁신 성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업 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7년 기준 53.1%였다.

이는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28.5%(통계청 2016년 기준)의 1.9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창업 지원기업은 2017년 기준 기업당 평균 5.55명(대표자 제외)씩 모두 3만87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까지 포함한 고용 창출 효과는 5만4489개 상당이다.

전년과 비교한 총고용 인원은 44.95% 늘었고,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은 17.88%로 일반 중소기업(1.54%), 대기업(2.41%)보다 높았다.

매출액은 기업당 평균 6.7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4.62% 증가해 일반 중소기업(11.02%), 대기업(7.93%)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2017년 기준 33.33%로 중소기업(25.38%), 대기업(15.46%)보다 높았다.

부채비율은 108.93%로 대기업(95.52%)보다 높지만, 중소기업(163.18%)보다 낮았고, 총자산 회전율은 0.6회로 중소기업(1.07회), 대기업(0.7회)보다 낮았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신안 흑산도·비금도서

기아차 무상점검 서비스

기아자동차가新安 흑산도·비금도 등을 찾아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점검일은 흑산도의 경우 5월 15-16일, 비금도 5월 17일, 전북 위도 5월 9-10일이다.

서비스 대상은 엔진과 변속기 등 기본적인 차량 성능 점검, 와이퍼 등 간단한 소모품 교환, 각종 오일류 보충, 차량정비 상담 등이다.

사전에 광주·전주 서비스센터와 연락해 현지 고객에 필요한 부품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점검을 제공하고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 지역 고객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는 현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상세한 정보는 기아차 고객센터(☎ 080-200-2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2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선호도·이용가능성 높은 평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매년 3월 발표하는 브랜드 가치 인증 제도로 소비생

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 산업 브랜드에 대해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해 부문별 1위 브랜드를 발표한다. 광주은행은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3월 21일 발표한 '2019년 제21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이날 광주은행은 1위 선정 인증식을 개최하고 KMAC 한상록 상무로부터 인증패를 전달 받았다.

광주은행 송중욱 은행장은 “오늘의 결과는 광주은행을 사랑하는 고객님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중심경영, 지역밀착경영으로 고객과 광주·전남 지역에 최상의 가치를 서비스하는 은행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가능성 속속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